

[글로벌 유동성]

고승희

02-3774-1871 seunghee.ko@miraeasset.com

Liquidity Tracker

펀더멘털에 대한 믿음, 외국인 수급의 귀환을 기대

- 선진국 주식형 펀드 -12.0억 달러, 신흥국 주식형 펀드 +7.7억 달러
- 선진국 채권형 펀드 -1.7억 달러, 신흥국 채권형 펀드 +0.7억 달러

보호무역주의과 인플레에 대한 우려에도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 지속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노이즈 확대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에도 신흥국 주식으로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음. 금주(3/1~3/7) 신흥국 주식형 펀드는 GEM(+3.2억 달러, AUM대비 +0.04%)과 신흥 아시아(+2.1억 달러, AUM 대비 +0.04%)를 중심으로 7.7억 달러 순유입. 한국으로의 배분액도 0.6억 달러 유입되는 모습

북미 주식형 펀드에서는 105.8억 달러(AUM 대비 -0.20%) 자금 유출. 반면 글로벌(+53.8억 달러), 선진 아시아(+39.1억 달러), 유럽(+0.9억 달러) 자금 유입되면서 선진국 주식형 펀드 전체로는 3주 만에 자금이 소폭 유출. 한편, 하이일드 펀드에서는 30.5억 달러(AUM대비 -0.60%) 순유출되면서 8주 연속 자금이 이탈

고용 서프라이즈 속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 개선 기대

미국 2월 고용지표는 서프라이즈를 기록. 민간고용은 시장 예상치인 20.5만 명을 큰 폭으로 상회한 28.7만 명을 기록. 실업자들의 평균 실업기간도 22.9주로 09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타이트 한 고용 환경에도 임금은 전년비 2.6%상승하며 안정적. IT(+4.6%), 금융(+4.6%)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제조업(+1.7%) 등 대부분의 임금 상승률은 1~2%대로 낮은 수준. 임금 상승률 확대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낮아지면서 3/9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1.7%이상 강한 상승

국내 증시는 완만한 반등 국면 이어질 것으로 예상. 견고한 펀더멘털 속 외국인의 귀환을 기대. 글로벌 주식형 펀드 내 한국 배분액이 11주 연속 유입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은 2월 이후 3.1조 원 순매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한국 배분액 유입 지속에 따른 영향으로 외국인 수급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업종 측면에서는 반도체 등 대형 IT에 주목.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반도체 등 대형 IT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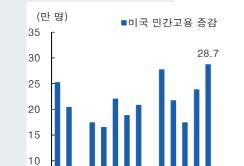


그림 1.2월 민간 고용 서프라이즈.28.7만 증가



그림 2. 미국 2월, 부문별 임금 상승률

-나스닥(L) (pt) (pt) 1500 8000 필라델피아 반도체(R) 1400 7500 1300 7000 1200 6500 1100 6000 1000 5500 900 5000 800

17.7

18.1

17.1

그림 3.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사상 최고치

자료: Bloomberg, Datastream,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5

Λ

17 1

Weekly Key Table

표 1. 글로벌 주식형 펀드 현황

(백만달러)

	1주간 유입강도		F간 유입강도(%	b)	4주 간 :	순유입	ç	변간 순유입액			총자산	
		3/1~3/7	2/22~2/28	2/15~2/21	순유입액	유입강도	2018	2017	2016	2018	2017	2016
	GEM	0.04	0.26	0.49	6,137	0.86	24,882	55,414	20,368	716,804	663,001	433,073
신	아시아(일본제외)	0.04	0.36	0.15	1,918	0.41	10,500	8,017	-24,197	473,083	452,548	322,706
흥	라틴아메리카	0.22	0.40	1.37	801	2.11	1,322	3,958	1,189	38,827	34,115	24,316
국	EMEA	0.33	0.21	0.57	358	0.76	801	-2,362	61	47,099	43,825	38,664
	신흥국(전체)	0.06	0.30	0.40	9,213	0.73	37,505	65,027	-2,580	1,275,812	1,193,490	818,759
	북미	-0.20	0.16	-0.04	-10,684	-0.20	-23,096	3,291	-27,509	5,240,738	5,200,119	4,279,799
선	유럽	0.01	0.10	0.21	8,280	0.58	16,073	36,108	-98,561	1,440,552	1,410,737	1,062,988
진	아시아 태평양	0.65	0.03	0.55	10,054	1.72	28,042	45,891	9,910	594,427	565,990	405,410
국	글로벌	0.23	0.17	0.18	19,544	0.83	49,917	144,165	25,497	2,365,186	2,300,687	1,640,344
	선진국(전체)	-0.01	0.14	0.09	27,193	0.28	70,936	229,455	-90,662	9,640,903	9,477,533	7,388,541
	한국관련 펀드 합계	0.24	0.19	0.28	37,652	0.92	113,341	253,487	31,578	4,149,500	3,982,226	2,801,533

주1: 한국관련 펀드 = GEM + 아시아(일본제외) + 아시아태평양 + 글로벌

표 2. 글로벌 채권형 펀드 현황

(백만달러)

	1주간 유입강도(%)			5)	4주간 :	순유입	ć	변간 순유입액		총자산		
		3/1~3/7	2/22~2/28	2/15~2/21	순유입액	유입강도	2018	2017	2016	2018	2017	2016
	GEM	-0.16	0.66	0.42	368	0.11	12,199	63,202	18,983	332,900	314,441	217,917
신	아시아(일본제외)	0.25	-0.08	0.16	305	0.30	240	2,734	3,852	100,551	97,036	70,070
흥	라틴아메리카	1.88	-0.51	0.09	118	0.62	363	2,058	-252	19,081	17,987	14,538
국	EMEA	-0.04	-0.30	-0.29	-132	-1.04	-255	459	16	12,621	12,450	9,055
	신흥국(전체)	0.02	0.42	0.33	658	0.14	12,548	68,454	22,599	465,153	441,914	311,579
	북미	-0.01	0.03	0.12	-4,348	-0.17	20,046	196,237	124,110	2,542,319	2,557,582	2,225,489
선	유럽	-0.01	-0.05	-0.12	-3,114	-0.35	-179	18,465	745	898,932	862,171	709,437
진	아시아 태평양	-0.10	-0.43	-0.27	-296	-0.72	-418	-674	-3,635	40,887	40,169	38,343
국	글로벌	0.01	0.04	0.21	387	0.04	2,960	63,518	3,964	877,872	849,987	680,592
	선진국(전체)	0.00	0.01	0.08	-7,371	-0.17	22,408	277,546	125,184	4,360,010	4,309,908	3,653,860
	하이일드채권	-0.60	-0.22	-0.35	-16,878	-3.21	-27,589	-16,970	10,377	509,011	547,304	499,180
글로벌 MMF		0.50	-0.61	0.06	-29,546	-0.71	21,643	145,134	-29,706	4,122,683	4,066,499	3,744,956

자료: EPFR,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표 3. 글로벌 섹터 펀드 현황

(백만달러)

	14	1주간 유입강도(%)		4주간 -	순유입	ō	년간 순유입액		총자산			
	3/1~3/7	2/22~2/28	2/15~2/21	순유입액	유입강도	2018	2017	2016	2018	2017	2016	
상품/소재	0.45	0.39	0.19	3,889	1.66	5,598	11,300	37,782	238,299	230,361	189,031	
소비재	1.18	0.24	0.28	593	0.88	-862	1,600	-8,837	68,135	68,875	54,566	
에너지	-0.29	-1.08	-0.41	-2,192	-1.76	-2,460	2,452	5,881	122,213	130,706	135,782	
금융	0.60	0.51	-0.03	2,236	1.32	5,670	25,219	9,825	172,062	157,257	109,839	
헬스케어/바이오	-0.12	-0.05	-0.48	-840	-0.76	-2,013	-2,669	-9,370	109,508	107,164	89,952	
인프라	-0.66	-0.34	-0.22	-759	-2.06	-513	668	-1,020	36,059	38,564	30,845	
부동산	-0.23	-0.08	-0.10	-2,259	-0.63	-3,755	-11,326	9,740	354,956	365,684	350,249	
테크놀로지	-0.16	0.85	0.63	2,806	1.85	7,223	18,329	-2,781	154,740	135,128	79,149	
통신	-1.39	-0.06	-0.90	-65	-1.72	-39	-81	33	3,713	3,910	5,015	
유틸리티	-0.32	-0.26	-0.34	-947	-1.83	-1,075	280	1,096	50,695	54,161	42,439	
산업재	-1.89	0.72	-0.50	-895	-2.58	1,398	3,142	7,440	33,860	31,966	23,103	
섹터펀드(전체)	0.02	0.12	-0.02	1,566	0.12	9,172	48,923	49,836	1,344,240	1,323,776	1,110,043	

자료: EPFR,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주2: 1주간 유입강도 = 1주간 유입액 / 총자산

자료: EPFR,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표 4. 후강통 관련 글로벌 자금흐름 현황

(백만달러)

	шст	금 이동 경로	FTLESI			연간유입액			
	윈드스	IE 시 용 성도	투자통화	3/1~3/7	2/22~2/28	2/15~2/21	2/8~2/14	4주 합계	2018
	본토	홍콩소재 본토투자(A)펀드	RMB	-112	-12	0	-526	-650	-585
	투자	중국소재 본토투자(A)펀드	RMB	139	65	0	125	329	2,459
	(A)	해외소재 본토투자(A)펀드	RMB	0	11	0	6	17	44
		A주 유입 합계		27	64	0	-395	-304	1,918
펀드플로우	홍콩	홍콩소재 홍콩투자(H)펀드	HKD	-158	141	-74	-270	-361	-2,292
건드글도구	투자	중국소재 홍콩투자(H)펀드	HKD	16	20	0	28	64	295
	(H)	해외소재 홍콩투자(H)펀드	HKD	-2	-3	-3	-4	-12	-160
		H주 유입 합계		-144	158	-77	-247	-309	-2,157
	해9	외소재 중국(A&H)투자펀드	기타	611	1,585	1,617	518	4,332	13,470
		중국 배분액 총합		495	1,808	1,540	-124	3,719	13,231

TL	자금 이동 경로에 따른 순매수 금액				주간순매수			연간순매수
^1			3/1~3/7	2/22~2/28	2/15~2/21	2/8~2/14	4주 합계	2018
후강퉁	후구퉁(홍콩 → 상해)	백만RMB	-2,810	5,266	0	-1,799	657	4,526
구성공	강구퉁(상해 → 홍콩)	백만HKD	1,881	-423	0	5,362	6,819	76,392
₩₩	선구퉁(홍콩 → 심천)	백만RMB	4	4,240	0	1,084	5,328	16,190
선강퉁	강구퉁(심천 → 홍콩)	백만HKD	5,252	5,145	0	-624	9,773	33,314

구분				연간상승률 (%)			
		3/1~3/7	2/22~2/28	2/15~2/21	2/8~2/14	4주 합계	2018
	MSCI China A index	0.4	1.7	0.0	-1.2	0.9	-2.1
주요인덱스	MSCI China H index	-1.6	-2.6	3.7	-1.1	-1.7	4.1
구요인텍스	본토프리미엄(A/H) index	1.9	2.9	-3.3	-6.1	-4.9	-0.4
	선전증시 index	1.4	4.2	0.0	1.4	7.2	-3.2

주1: 본토프리미엄은 주간 MSCI China index 대비 MSCI China A index 상대주가로 도출

주2: 중국으로 유입되는 펀드플로우가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지, 심천에 투자하는지는 구분하지 않고 있음

자료: EPFR, HKEX,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표 5. 이머징 국가별 펀드 현황

10/	١

				주식형펀드 1주간	유입강도			
	3/1~3/7	2/22~2/28	2/15~2/21	2/8~2/14	2/1~2/7	1/25~1/31	1/18~1/24	1/11~1/17
 중국	0.10	0.38	0.35	-0.03	0.19	0.75	0.67	0.22
한국	0.05	0.26	0.40	0.11	0.09	0.41	0.62	0.45
브라질	0.12	0.30	0.72	0.13	0.24	0.32	0.53	0.48
대만	0.02	0.23	0.36	0.03	0.10	0.38	0.45	0.34
남아프리카	0.12	0.26	0.46	0.12	0.05	0.45	0.62	0.41
인도	0.04	0.18	0.25	-0.02	0.04	0.51	0.53	0.28
러시아	0.18	0.18	0.57	-0.16	-0.11	0.41	0.64	0.64
멕시코	0.23	0.20	0.63	0.17	0.12	0.63	0.64	0.43
말레이시아	0.03	0.29	0.42	0.05	0.02	0.48	0.78	0.62
태국	0.16	0.18	0.42	0.16	0.15	0.23	0.09	0.35
인도네시아	0.08	0.26	0.47	0.01	0.05	0.51	0.62	0.38
폴란드	0.20	0.35	0.48	-0.10	0.08	0.38	0.61	0.31
칠레	0.10	0.29	0.56	-0.07	-0.22	0.37	0.64	0.40
터키	0.14	0.28	0.42	-0.04	-0.01	0.37	0.52	0.32
콜롬비아	0.20	0.26	0.52	-0.14	0.15	0.45	0.44	0.46
필리핀	0.02	0.27	0.43	0.04	0.03	0.43	0.62	0.48
페루	0.07	0.25	0.52	0.14	0.05	0.35	0.63	0.55
체코	0.15	0.28	0.37	0.08	-0.02	0.35	0.57	0.33
헝가리	0.18	0.35	0.49	0.00	0.03	0.46	0.63	0.39
이집트	-0.03	0.06	0.48	0.00	0.02	0.54	0.66	0.48
그리스	0.14	0.28	0.34	-0.02	-0.14	0.78	0.81	0.52
카타르	0.06	-0.28	0.41	0.09	0.10	0.53	0.52	0.54
UAE	0.07	0.22	0.42	0.14	0.10	0.50	0.57	0.42

자료: EPFR,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표 6. 아시아 주요 6개국 외국인 매매 동향

(백만달러)

										,	
		1주간 순매수		4주 및 연	l간 합계	연간 순매수액					
	3/5~3/8	2/26~3/2	2/19~2/23	4주 합계	2018년 (YTD)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한국	-475	-249	11	-385	-287	-287	5,399	9,496	-3,256	4,787	
대만	-275	-692	153	-1,475	-1,717	-1,717	4,678	9,979	1,665	11,770	
인도	-31	-506	-518	-1,125	142	142	8,014	2,903	3,274	16,162	
태국	-212	-222	-120	-893	-1,813	-1,813	-795	2,240	-4,372	-1,091	
인도네시아	-260	-186	-34	-597	-989	-989	-2,966	1,253	-1,572	3,772	
필리핀	-39	-76	-45	-221	-312	-312	1,095	83	-1,194	1,256	
 합계	-1,292	-1,931	-552	-4,697	-4,976	-4,976	15,425	25,955	-5,454	36,655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